

# Japan Vending Industry News

일본 자판기 시장은 최근 위조 500엔 동전 문제가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500원 동전을 이용한 자판기 털기 문제가 엄청난 파장으로 확산되어 신500엔 동전 발행으로 이어졌던 게 사실. 500엔 문제는 그 후 잠잠해지는 가 했더니 최근 새로운 위변조 동전이 다량 출몰하여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유인 유통은 물론 자판기, ATM 등에 막대한 파급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유관단체 등에서는 본격적인 대책강구에 분주해지고 있다. 또한 500엔 동전 이외에도 1000엔권, 10000엔권 등에서도 위조지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등 일본사회는 '위폐와의 전쟁'을 앞으로 불사해야 할 상황이다.

금호 일본뉴스에서는 위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들을 자세하게 담아 봤다. 이외에도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담배자판기 문제, 수난을 당하는 유해 도서 자판기 등의 뉴스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이번 일본 뉴스들은 삶에 있어 자판기의 비중이 증대되면 필수록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커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500엔 동전 관철나? 위조 동전 재무성 등 긴급회의 폐지만 부상의 가능성도



고도의 위조 방지 기술이 풀렸음이 분명한 신500엔 위조 동전이 발견된 사건으로,

재무성은 지난 2월 8일, 경찰청이나 일본은행, 기계메이커의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었다. 대량의 위조 동전이 입금된 우체국뿐만이 아니라, 취급을 중지하는 케이스도 잇따라 발생, "통화 신임의 적으로 중요한 문제" (타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고액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지적도 있어, 위조가 계속되면 폐지 가능성도 부상할 수도 있다.

### ◆ 고액이기 때문에

"동전은 지폐의 보조이며, 고액의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가"라고, 금융 전문 후지타 세이이치·코베대학 교수는 지적한다. 500엔 동전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고액의 동전(조폐국)로 여겨져 위조에 일정한 코스트를 들여도 이익이 나온다. 구 500엔으로는 한국의 500원 변조화가 자동판매기 털기에 사용되었지만, 당시 500원의 가치는 일본엔으로

50엔 정도였다.

500엔은 100엔 동전의 유통량이 동전 전체의 60%를 넘은 것으로부터, 고액 동전의 필요성이 높아져 쇼와 57년 4월에 발행된 경위가 있지만, 이번 발견된 신500엔의 위조 동전도 위조설비 등에 돈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고액 위조의 표적이 되기 쉽다.

### ◆ 요동하는 신임

타니가키 재무상은 "현금 자동입출금기(ATM)를 빠져나가고 있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위조 동전이 대량으로 발견된 우체국에서는 사건 발생 후부터, ATM에 "일시적으로 동전에 의한 취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쓴 「소식」을 게시해, 창구로의 입금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에 복수 점포를 가지는 대형 파칭코 체인의 담당자는 "뉴스가 흐른 직후에 모든 받아들이기를 중지했다. 연말연시로부터 위조 만엔권이 나돌고 있어 자주 방위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슈토 고속도로 공단은 요금소에 "위조 통화를 체크중"이라는 벽보를 보냈다. 요금소의 수납원에 대해서도 "위조 통화의 분별하는 방법을 연락했다"(홍보과)며, 취급 중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한다.



### ◆ 「유인 작전」

이번 사건으로 사용된 위조가 의심되는 동전은 우체국에서만 1만9천매를 넘었다. 그러나 재무성은 “동전을 발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회수나 신규 발행의 정지만은 하고 싶지 않다”(이재국 간부) 라고 본심을 흘린다. 대신 범인 체포와 위조 동전·지폐의 특징을 파악해 대응하는 「유인 작전」을 제일로 든다.

마모한 동전까지 튕겨 버리므로 금융기관 등은 싫어하지만 ATM나 자동판매기의 감도를 올리는 일도 가능해, “유통 정지는 마지막 수단”(이재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첫 회답이 된 이날의 회의에서는 동종의 위조 동전을 발견한 세관의 정보를 경찰이 공유하는 것이나, ATM의 감도의 문제 등이 서로 이야기 하게 되었지만,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끝났다. 기술적인 대항 시책에도 위조는 끊이지 않고 온 세상에 결정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락 회의의 설치는 한국 5백원의 변조화가 대량으로 나돈 헤세이 11년 10월 이래로 전회의 회의에서는 재발 방지책으로서 현행의 신5백엔 동전의 발행으로 연결되었지만 피해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동전뿐만이 아니라 연말연시에는 구만엔권의 위조지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그리고 연락 회의가 열린 지난 8일이나 구5천엔권의 위조지폐가 삿포로 시내 등에서 발견되는 등 통화의 신뢰가 요동치고 있다.

### 자동판매기, ATM 5백엔 식별기능을 강화 대책 분주

재무성은 지난 2월 18일 후쿠오카현, 쿠마모토현, 도쿄도등에서 가짜 신5백엔 동전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으로, 업계 단체인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나 메이커에 자동판매기와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의 식별 기능의 강화를 요청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위조의 혐의가 있는 5백엔 동전은 오이타현에서도 확인되어 피해는 6도현으로 확대하고 있어 관계 부처는

위조로 확정된 동전으로 시험을 거듭해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재무성이나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같은 날, 2번째의 연락 회의를 개최했다. 위조의 혐의가 있는 약 2만매의 5백엔 동전 가운데, 독립 행정법 인조폐국이나 경찰청 등의 감정으로 합계 1060매가 위조로 판정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 신품 동전과의 교환을 촉진

재무성과 금융원,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 후쿠오카현이나 쿠마모토현, 도쿄도등에서 가짜 신500엔 동전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 현재 나돌고 있는 신500엔 동전의 더러워진 것을 가능한 한 회수해 신품과의 교환을 촉진하는 대응책을 준비했다.

은행 등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외에도 자동판매기의 식별 기능을 강화하는 일도 관계 단체에 요청한다. 이번 발견된 위조 동전은 진짜와 비교해 약간 광택이 없는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품의 동전을 늘려 분별하기 쉽게 하는 목적이 있다. 과거 신품과의 교환은 본래 훼손된 동전이나 구500엔 동전이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대응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 오키나와 현내 우체국, ATM, 신500엔 동전 취급 정지

일본 우정 공사 오키나와 사무소는 위조 동전 사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오전부터 당분간 현내 우체국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로 신500엔 동전의 취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취급이 정지된 것은 현내의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ATM 269대 가운데 동전 사용이 가능한 103대이다. 500엔 동전의 취급에 대해서는 향후는 창구만으로 대응해 나간다. 같은 조치는 규슈, 도쿄, 칸토 지역의 우체국에서도 일제히 실시되고 있다.

위조500엔 동전은 1월말에 후쿠오카시의 우체국 등에

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일본 우정 공사는 ATM의 개량 등을 메이커 측에 요청하는 등의 대응을 강구하고 있었다.

현내의 우체국에서는 같은 날부터 해당하는 ATM에 취급 정지를 알리는 표시를 해 이용손님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현내의 버스 회사는 신500엔 동전 대응의 요금상자나 환전기의 센서로 동전을 판별하기 위해 500엔 동전 자체의 사용을 정지할 예정은 없다고 한다.

오키나와 도시 모노레일사에서는 “메이커 측에서 동전 판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회사 독자적인 대응책은 현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지만, 향후 위조 동전이 현내에서도 사용되는 것 같은 일이 있는 경우는 대응책을 검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현내의 금융기관에서도 500엔 동전의 취급을 정지할 예정은 없지만, “메이커 측과 상담해 ATM가 진짜라고 인식하는지 어떤지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키나와 코카·콜라보틀링이나 오키나와 펍시 사료는 자동판매기내에 동전을 식별하는 장치가 붙어 있어 위조 동전이 투입되었을 경우는 반환구로 돌아오는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500엔 동전의 취급을 정지할 예정은 없다고 한다.

가짜 1만엔 지폐 잇따라 발견

**신지폐 보급이 늦고 카드 침투, 현금거래 감소**

위조된 구만엔권이 연말연시에 연달아 발견되었던 것에 관계자가 초조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사건의 재발 방지에는 구찰의 회수를 가속시켜, 최신의 위조 방지 기술을 구사한 신지폐를 일각이라도 빨리 침투시키는 것이 유효하지만 시중의 지폐가 100% 신지폐가 되려면 2년도 걸린다고 한다. 신지폐의 비축량이 적은 것이나, 이전에 비해 신용카드나 전자거래의 보급으로

현금에 의지할 기회가 큰 쪽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요인이다. (와타나베 히로시생)

지난 2월 7일까지 전국 31도도부현에서 가짜의 구만엔권이 합계 약9백매 발견되었다. 일본은행에서도 칸토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구찰로부터 위조지폐 한장이 발견되었다. 모두 투인가 하나 식별 마크도 없는 「치졸한 구조」(일본은행 관계자) 이지만 신지폐와 구찰이 뒤섞이는 시기를 노린 범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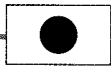
◆ 앞으로 2년…



작년 11월에 신천엔권, 5천엔권, 만엔권의 유통이 시작되어 2개월 이상이 경과했지만 지갑 안은 낡은 지폐가 섞이고 있다. 일본은행에 의하면 작년 말 시점에서 시중에 유통하는 약135억매의 지폐 가운데 신지폐의 비율은 약2할, 모든 지폐가 이 신지폐가 되려면 2년은 걸린다고 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월 6일, 전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신지폐의 유통 촉진과 구찰의 조기 회수를 문서로 요청하고 교체를 가속시키려고 열심이다. 하지만 대기업 은행 간부는 “중요한 일본은행으로부터 오는 지폐에 구찰이 섞이고 있어 효과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시중의 금융기관은 이용자로부터의 예금이나 지불 등으로 모인 지폐를 일본은행에 당좌예금이나 환전을 위해서 반입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미리 기계로 신지폐와 구찰을 골라내고 있으므로, 일본은행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지폐는 구찰이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지폐는 도입 최초의 일주일간은 모두 신지폐였지만, 현재는 2할의 구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독립 행정법인 국립 인쇄국에서 인쇄되고 일본은행에 도착되는 신지폐의 비축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지폐를 발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20년 전의 경우보다 짧았던 것



이 영향을 주고 있다」(금융 관계자)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 자판기도 요인

약 20년 전의 신지폐 도입 시에 비해, 돈의 유통량은 4배 가깝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카드 등의 보급으로 실제로 현금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교체가 진행되지 않는 요인이다. 신지폐를 이용할 수 없는 자동판매기가 많은 일도 구할 "연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각도에 의해 모양이 바뀌는 「홀로그램」 등 최신의 하이테크 기술을 구사해 「세계에서 가장 위조가 어려운 지폐」라고 일본은행이 가슴을 퍼는 신지폐. 하지만 시중에 완전하게 널리 퍼졌을 무렵에는 새로운 위조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일본은행, 신1만엔 지폐를 내년도 증쇄  
위조지폐 다발로 유통 재촉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21일 까지 구1만엔 지폐가 대량으로 나돈 사건을 받아 지폐를 인쇄하는 국립 인쇄국에 대해 신1만엔 지폐에 관해서 2005년도는 04년도(25억 4000만매)보다 증쇄를 요구할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최신 위조 방지 기술을 구사한 신지폐의 유통을 재촉해 구지폐의 회수를 서두르는 것으로 위조지폐의 유통에 브레이크를 건다.

작년 11월에 도안을 쇄신한 새로운 지폐는 위조지폐 대책을 급한 것, 준비 기간을 짧게 한 것 등의 요인으로 발행 개시 시에 유통량의 약 반정도에 해당하는 50억 매 밖에 재고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에의 지불에 구지폐를 3할 정도 섞어 대응하고 있었지만 이번 위조지폐 다발로 신구가 바뀌는 것을 반년 정도 앞당길 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두 신지폐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판매기를 제

조하는 업계 단체에 신지폐에의 대응을 재촉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

2004년 천엔권의 위조가 과거 최대

작년 1년간에 전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년 대비 52·9%증가한 2만 5858매로, 이 중 천엔권은 동 67·2% 증가한 1만 6012매로 과거 최대였다는 사실이 지난 2월 경찰청 발표로 들어났다. 1만엔 지폐도 동 43·8%증가한 8828매로 1987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천엔권은 자동판매기나 환전기를 노려 2001년 이후에 급증했고, 1만엔, 5천엔도 1999년 이후 증가 경향에 있다. 이에 경찰청은 「PC나 칼라 프린터의 보급으로, 누구라도 위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1만엔 지폐는 작년 12월의 1개월간에만 약 3800매를 발견되었다. 연말연시의 신사·불각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위조지폐와 같은 기번호의 것이, 다른 장소에서도 나돌고 있었다. 년 11월의 신지폐 발행과 연말의 혼잡을 탄 범행이 겹쳤다고 보여 진다.

미성년자의 흡연 방지로 담배 자판기 설치 조건 까  
다로워진다

재무성은 지난 3월 29일 미성년자의 흡연 방지를 촉진하기 위해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조건을 엄격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자판기를 대상으로 자판기 설치업자에 대해 점포에의 병설 등을 [소매 판매업의 허가 조건]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 대응을 한다. 이같은 방침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은 흡연의 건강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보건기구(WHO)의 「담배 규제 범위 조약」이 2월에 발효됐기 때문이다

**보행 흡연 금지, 담배자판기 규제 등 금연대책 추진**

담배 규제 범위 조약 발효에 즈음하여, 초당파의 의원으로 구성된 금연추진 의원 연맹(약 70명)이 지난 2월 23일 도쿄도내에서 총회를 열어, 보행 흡연의 금지나, 담배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규제 등의 실현을 향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서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담배 가격이 구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싸 소비 억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나, 미성년자의 흡연 방지를 위해 약 60만대 있는 자판기의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연추진 의원 연맹은 2002년 3월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조약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요청서를 재무성이나 후생노동성에 제출하거나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 담배세 증세를 요망하는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해 도서자판기 수난시대**

외설 비디오 등을 자동판매기에 수납했다고 해서 카나가와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위반(수납 금지) 죄에 거론된 산와 도서 판매(토쿄) 사장 나카지마 케이지 츠카사(34) 등 3피고인에 대해 총액 1320만엔의 벌금이 구형되었다.

나카지마 피고 등은 지금까지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검찰 측은 악질적인 범행으로서 각 수납 행위를 자판기마다 1죄로 해, 병합죄를 적용. 나카지마 피고등 2피고와 법인에 각13건분, 남는 1피고에게 5건 분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이례적인의 고액 벌금(1건에 대해 30만엔)을 구형하고 있었다.

판결에 의하면 나카지마 피고 등은 작년 6월 1일부터 7월 26일에 걸쳐 요코하마시나 동현 에비나시등의 도서자판기를 통해 유해 개인잡지나 비디오테이프, DVD 타이틀을 수납·판매했다.

한편 아마다타현은 현의회 일반 질문으로 현 청소년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유해 도서등을 판매하는 자

동판매기 설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시야마 요시노부현 문화 환경부장이 답변했다.

현 남녀 공동 참가실에 의하면, 동조례에서는 도서류를 판매하는 자판기 설치의 경우, 사전에 현에 신고하고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 외에 자판기로 유해 도서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에 신고된 자판기는 현내에 191대 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 등의 원격 감시 장치를 갖춘 자판기가 등장, 동조례에 자판기의 상세한 정의가 없을 것을 들어 일부 업자가 원격 감시로 구입손님의 연령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 “대면 판매와 같아, 동조례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해 도서 판매의 자판기 규제가 조금씩 밖에 안 된다고 염려하는 주민의 소리를 수용하여 현 시장회에서도 현에 요망하는 것이 승인되고 있었다.

현은 동조례에 원격 감시 장치 첨부 자판기도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자판기의 명확한 정의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전국 10도부현이 벌써 조례로 자판기를 「대면 판매 이외」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동실은 「정의의 방법은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동판매기의 「지진시 전도 방지 시스템」을 개발**

주식회사 NTT 파시리티즈와 삼국 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 브레인 등 3사는 청량음료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의 새로운 설치 방법으로서 면진\*1과 체진\*2의 기구를 거두어 드린 「지진시 전도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새로운 발상의 전도 방지 시스템은 대규모 지진 때 자동판매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제어하는 동시에 기기 전방에의 전도 방지하는 것으로, 지진 시에 사람이나 긴급 차량 통행 방해 등의 이차적 피해를 방지해 사회적으로 한층 더 안전성을 확보한다.